

##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수준 비교\*

최 은 주\*\*

명호초등학교 교사

박 재 국\*\*\*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김 혜 리\*\*\*\*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 《 요 약 》

---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수준을 비교·검토하고 이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서 그들의 바람직한 학교적응으로 위한 교육적 지원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563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스트레스의 5가지 하위요인에서 영재아동이 일반아동 보다 스트레스를 다소 적게 받았으며 둘째, 학교적응에서 전반적으로 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는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정서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제어 : 영재아동, 일반아동, 스트레스, 학교적응

---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2011년도 석사학위청구논문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eunju7909@hanmail.net)

\*\*\* 교신저자(pjk006@hanmail.net)

\*\*\*\* 공동저자(miss1117@hanmail.net)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가 근심이 없고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시기라는 가설은 더 이상 지지되지 않고 있으며,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이들도 어른처럼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최재영, 2006; 한은자, 2008).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은 가정이나 이웃에만 국한되었던 사회 환경의 범위가 학교라는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적응적 요구를 받게 된다. 또한 학습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인하여 아동이 미처 준비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성취 및 적응력을 무리하게 강요받으면서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한은자, 2008; Gagne, 2000). 적당한 스트레스는 아동들의 문제인식과 수행능력을 증가시키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대처행동은 아동들로 하여금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평적 문제, 학습장애, 등교거부, 학업포기, 가출, 비행 등의 문제행동, 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갈등, 가족 갈등과 같은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게 한다(정연우, 2001; 조봉환, 2004).

이러한 스트레스는 비단 일반아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재아동은 어느 정도 또래와 동일한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동일한 발달적 욕구 및 발달과업에 봉착하지만, 일반아동에 비해 다소 빠른 속도로 각 단계에 도달하면서 내적-외적으로 부조화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박경빈, 2007). 영재아동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은 개인적 요인과 외부환경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 개인적 요인은 1차적으로 영재의 인지, 정서적 특성 및 사회적 요구에 귀인하고 외부환경요인은 영재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요인에 귀인하는데, 외부환경요인에는 부모, 가족, 교사, 또래, 학교, 사회, 문화적 여건과 태도 및 가치 준거 등이 포함되며, 이는 영재가 가진 개인적 특성과 맞물려 갈등을 자아낸다(심재순, 2006; Swiatek, 2001).

다시 말해, 영재아동은 영재라는 개인적 특성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다양한 스트레스 및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갈등과 좌절, 충동적인 행동의 표출, 완벽성,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나친 기대에 대한 부담감, 지나친 경쟁의식, 동기 부족, 사회성 부족, 학업부진, 학교 장면에서의 부적응, 좌절로 인한 정서적 고립, 자아개념과 우울 등을 겪기도 하며, 때로는 긍정적으로 자아실현을 위한 승화과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윤여홍, 2003).

지금까지 이루어진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권혁록, 1996; 한미현, 윤안진, 1995), 초등학생들의 스트

레스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김춘희, 2000; 김현선, 2006; 김형철, 2000; 박광수, 2000; 백영광, 2001; 윤지순, 2002; 이나미, 2006; 이연실, 2005),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들(김민기, 2000; 박경빈, 2007; 심재순, 2006; 정연우, 2001)과 같이 다각적인 각도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초등학교 일반아동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고, 영재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는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교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학교는 아동들에게 있어 단순한 공간적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미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며, 학교에서의 모든 경험은 발달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학교는 아동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장면임과 동시에 가정에서 사회로 그 생활범위가 확대되는 곳이며, 교사와 친구관계가 맺어지는 사회관계의 장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성취가 이후의 사회적응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들에게 있어 학교는 의미 있는 주요 환경 중의 하나이고(Solomon et al., 2002) 학교에서의 바람직한 적응은 이후의 발달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고, 학업성적이 낮은 학습자일수록 학교생활 적응상의 문제가 많으며(구혜숙, 1994), 교사와의 관계에서 학습자가 교사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일수록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부정적인 지각을 지닌 학습자들은 학업성적이 좋지 않다(김원순, 1996). 그리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습자들은 학교에 대한 감정,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전반에도 공헌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정기현, 2000).

영재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은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과제가 주어지면 지루해하지 않고 잘 적응하는 반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 부적절한 과제가 주어질 경우에는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Gallagher & Gallagher, 1994). 아울러 높은 과제집착력으로 인해 주변 친구들에게 관심이 적고 빠른 학습속도는 수업에 흥미를 잃게 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관심없는 분야에서 낙제를 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취를 했을 경우에는 무기력, 자기비하, 좌절, 분노 등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초래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최인혁 외, 2009; Hardman et al., 2005).

몇몇 선행연구(백영광, 2001; 김형철, 2000; 윤지순, 2002)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에는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입증하면서, 개인이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빠르게 되면 인간의 내적 기능이 평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고(김남재, 1986), 이렇게 발생한 스트레스는 특히 성장기 아동들의 학습능력 신장을 저해하고, 친구와 교사와의 불만족한 대인관

계, 부적절한 행동과 정서 표출, 우울증, 불행감 등 여러 유형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김춘희, 2000)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이라는 2가지 변인을 동시에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울러 영재아동교육 관련 국내연구의 대다수는 영재의 개념정의와 판별도구 개발, 영재 선별 및 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며(이국행 외, 2003), 영재아동의 적응력, 대인지각, 스트레스 등과 같은 사회·정서적 발달의 측면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교육적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물론 영재아동교육 관련 국외연구의 경우에는 영재아동의 사회·정서적 영역에 대해 다루고 있긴 하나 주로 그들의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며(Gallucci et al., 1999; Garland & Zigler, 1999; Sayler & Brookshire, 1996),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연구들(Colangelo, 2002; Moon, 2002)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일반아동이 나타내는 표준적인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영재아동이 어떠한 발달특성과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영재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수준을 명확하게 검증하는 연구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수준을 비교·검토하고 이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이 겪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그것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서 그들의 바람직한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적 지원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문제

이상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교사 및 학교장의 관찰·추천에 의해 영재로 선발되어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초등영재교육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수학 및 과학 영재아동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의 일반 공립 초등학교 4~6학년 일반아동이다. 영재아동은 수학 및 과학의 개념 습득이나 이해 위주의 지식중심학습이 아닌 깊이 있는 사고와 이해를 촉진하는 탐구활동중심의 심화 교육과정을 연간 수업시수 140~204시간에 걸쳐 적용받고 있으며, 창의적 산출물 대회,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복수담임제 운영을 통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수업이 시행되고 있다. 총 590부(영재아동 300부, 일반아동 2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일반아동 집단 중 영재교육 경험이 있는 6명의 설문지와 응답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21부를 제외하고 총 563부를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구성

학년	영재아동		일반아동		총계
	남	여	남	여	
4학년	32	21	34	25	112
5학년	56	72	52	49	229
6학년	64	51	57	50	222
합계	152	144	143	124	563

### 2. 연구 도구

#### 1) 스트레스 측정 설문지

영재아동 및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박경빈, 2007; 박소희, 2010; 정복순, 2002; 정연우, 2001)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 및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일반아동 담임교사 3명, 영재아동 담임교사 1명, 특수교육 전문가 1명에게 연구 목적의 적합성, 연구 대상의 적절성, 내용적 일관성, 문항의 적절성, 용어사용의 적합성, 문장의 이해도, 응답방식의 적절성 등과 같은 기준에 따른 검토를 의뢰하였고,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고 52개 문항을 일차 선별하였다. 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학업문제’는 학령기아동의 스트레스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아동 생활 전반에 걸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독립된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기에는 다른 영역들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따라서 ‘학업문제’ 영역을 삭제하고 관련 문항들을 다른 하위영역 즉, 개인문제, 교내생활, 가정, 놀이·여가 영역의 문항으로 적절하게 재조직하였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의 일반 공립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일반아동 학년별 각20명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초등영재교육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영재아동 학년별 각 20명의 총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고, 예비조사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적절하거나 애매모호한 문항을 수정·보완·삭제하여 최종적으로 5개 영역 45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채점방식은 Likert식 5단계 척도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따라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3점 ‘보통이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각 하위영역별 내용과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아래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스트레스 측정 설문지의 하위영역별 내용

하위영역	내 용
개인문제	자신의 진로나 외모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 혹은 자신이 지각하는 자기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열등감, 학업문제 등을 반영한다.
대인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친구와의 다툼, 놀림, 비교 등이 포함된다.
교내생활	대인관계를 제외한 학급 및 학교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 학업문제 등을 포함한다.
가정	가정의 구조적 환경, 가정 분위기, 양육 상태 등 가정환경에서 비롯되는 불만이나 심리적 고통, 학업문제 등이 포함된다.
놀이·여가	사회문화 시설 및 놀이 공간, 여가시간, 용돈 등과 관련하여 아동이 느끼는 불만, 짜증, 학업문제 등이 포함된다.

〈표 3〉 스트레스 측정 설문지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개인문제	11, 12, 13, 14, 15, 17, 18, 19, 20, 23, 24	11	.89
대인관계	30, 32, 33, 34, 35, 36, 37	7	.89
교내생활	29, 31, 38, 39, 40, 41, 42, 43, 44	9	.81
가정	1, 2, 3, 4, 6, 7, 9, 10, 25, 26, 27, 28	12	.86
놀이·여가	5, 8, 16, 21, 22, 45	6	.68
	계	45	.95

## 2) 학교적응도 측정 설문지

학교적응도 측정 설문지는 김용래(2000), 정복순(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보완 및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절차는 위의 스트레스 측정 설문지와 동일하며, 47개의 일차 문항을 선별 후 최종적으로 4개 영역 36개 문항을 확정하였다. 채점방식은 Likert식 5단계 척도로써 반응 범주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단계로 구분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각 하위영역별 내용과 문항 구성 및 신뢰도는 아래의 <표 4>, <표 5>와 같다.

〈표 4〉 학교적응도 측정 설문지의 하위영역별 내용

하위영역	내 용
학교교사 적응	담임선생님과 조화로운 관계 정도, 도움을 청하려는 정도, 긍정적 감정의 적절성 여부
학교친구 적응	학교 친구들과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일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도
학교수업 적응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공부할 때의 집중도, 주어진 과제의 해결 정도
학교생활 적응	교내 규칙과 질서, 각종 행사 등 학교생활의 전반에 걸친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긍정적이며 올바르게 행동하는가의 여부

〈표 5〉 학교적응도 측정 설문지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학교교사 적응	1, 3, 6, 7, 8, 10, 11, 27, 30, 35	10	.91
학교친구 적응	2, 12, 13, 14, 15, 16, 17, 18, 19	9	.92
학교수업 적응	5, 20, 21, 22, 23, 24, 25, 28, 31	9	.78
학교생활 적응	4, 9, 26, 29, 32, 33, 34, 36	8	.91
계		36	.96

###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1년 4월 둘째 주부터 약 2주간이다. 영재교육원에서는 영재학급담임의 동의하에 연구자가 직접 아동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다. 또한 일반학교에서는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담임교사의 일괄 지도하에 수업 중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당일 수거되었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첫째,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초통계량(빈도, 평균, 표준편차)을 산출하고, 두 집단 간의 비교를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수준 및 차이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t$ -검증을 통하여 5개 영역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영재아동과 비교할 때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개인문제( $t=-6.52, p<.001$ ), 대인관계( $t=-4.53, p<.001$ ), 교내생활( $t=-4.47, p<.001$ ), 가정( $t=-3.59, p<.001$ ), 놀이·여가( $t=-3.31, p<.001$ )의 5개 요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아동이 영재아동에 비해 5개 요인에서 모두 스트레스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각 스트레스 요인별 차이에서는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놀이·여가, 개인문제, 교내생활, 가정, 대인관계 요인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점수 차이는 매우 적었으며 각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가 1.69~2.65로 나타나,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스트레스를 비교적 적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표 6>은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수준 및 차이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6>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수준 및 차이

스트레스 요인	구분	N	M	SD	t
개인문제	영재	296	2.06	.85	-6.52***
	일반	267	2.51	.79	
대인관계	영재	296	1.69	.80	-4.53***
	일반	267	2.02	.91	
교내생활	영재	296	2.01	.84	-4.47***
	일반	267	2.32	.89	
가정	영재	296	1.96	.72	-3.59***
	일반	267	2.18	.72	
놀이·여가	영재	296	2.42	.81	-3.31***
	일반	267	2.65	.83	

\*\*\* $p<.001$

## 2.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적응 수준 및 차이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을 통하여 4개 영역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영재아동의 각 영역별 평균은 학교생활 적응(4.26), 학교친구 적응(4.32), 학교수업 적응(3.87), 학교교사 적응(4.02)로써, 4개 영역에서 모두 일반아동의 평균보다 높았다. 영재아동의 학교적응 요인은 일반아동과 차이가 있었는데 학교생활 적응( $t=8.60, p<.001$ ), 학교친구 적응( $t=6.99, p<.001$ ), 학교수업 적응( $t=10.08, p<.001$ ), 학교교사 적응( $t=6.69, p<.001$ )의 4개 요인에서 모두 일반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재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은 적응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적응도에 대한 점수 차이는 매우 적었으며 각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가 3.32 ~ 4.32로 나타나,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대체로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7>은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적응 수준 및 차이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7>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적응 수준 및 차이

학교적응 요인	구분	N	M	SD	t
학교생활 적응	영재	285	4.26	.78	8.60***
	일반	264	3.66	.85	
학교친구 적응	영재	285	4.32	.79	6.99***
	일반	264	3.83	.84	
학교수업 적응	영재	285	3.87	.63	10.08***
	일반	264	3.32	.65	
학교교사 적응	영재	285	4.02	.85	6.69***
	일반	264	3.56	.75	

\*\*\* $p<.001$

## 3.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간 관계

### 1) 초등학교 영재아동의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분석

초등학교 영재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영재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스트레스 요인과 학교적응의 변수들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과 학교적응도가 감소하는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개인문제 요인(-.40)과 대인관계 요인(-.39), 가정 요인(-.41)에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교친구 적응에서는 개인요인(-.42), 대인관계요인(-.45), 가정요인(-.43)에서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8> 초등학교 영재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스트레스 \ 학교적응	학교생활 적응	학교친구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교사 적응
개인문제	-.40***	-.42***	-.37***	-.27***
대인관계	-.39***	-.45***	-.31***	-.28***
교내생활	-.35***	-.33***	-.31***	-.24***
가정	-.41***	-.43***	-.33***	-.29***
놀이·여가	-.35***	-.38***	-.33***	-.32***

\*\*\* $p < .001$

## 2) 초등학교 일반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분석

초등학교 일반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일반아동의 경우 개인문제 요인과 학교교사 적응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나머지 스트레스 요인과 학교적응의 모든 변수들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문제 요인과 학교교사 적응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과 학교적응도가 감소하는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 요인(-.42)과 학교친구 적응에서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앞서 영재아동의 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일반아동이 영재아동보다는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대인관계 요인과 학교친구 적응에서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9〉 초등학교 일반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스트레스	학교적응	학교생활 적응	학교친구 적응	학교수업 적응	학교교사 적응
개인문제		-.29***	-.23***	-.19**	-.10
대인관계		-.33***	-.42***	-.22***	-.27***
교내생활		-.33***	-.19**	-.18**	-.27***
가정		-.33***	-.23***	-.23***	-.26***
놀이·여가		-.25***	-.16**	-.18**	-.22***

\* $p < .01$ , \*\*\* $p < .001$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수준을 비교·검토하고 이들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이 겪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그것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서 그들의 바람직한 학교적응으로 위한 교육적 지원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상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의 5가지 하위 요인인 개인문제, 대인관계, 교내생활, 가정, 놀이·여가 요인으로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차이를 비교한 결과, 영재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이 일반아동보다 근소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스트레스가 낮은 편이라고 보고한 몇몇 연구(박성욱, 이진숙 2003; 송경애, 2001; 허창재, 2002)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영재아동의 경우, 일반적인 영재의 정의에 속하는 아동이라기보다 교육청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아동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여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교육청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된 대다수의 아동은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교사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아동으로써,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는 환경에 처해진 아동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영재아동이 많고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물론 본 연구를 통하여 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영재아동 개인이 가지는 정서적 취약성 문제는 결과와 관련지어 논의해볼만한 중요한 내용이다. 즉 정서적 취약성의 여부는 영재 개인의 인지적 특성 및 심리적 욕구와 이를 지도하는 외부 환경적 요인의 상호 영향에 달려 있다. 영재로 판별되어 영재교육을 비롯하여 교사의 지도를 받는 경우에도 개인이 지닌 영재적 특성이 잘못 이해되거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된다면 좌절과 부정적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으며,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재로 판별되지 못한 경우에는 영재교육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고 교사의 지도가 뒤따르지 않게 됨으로써 사회정서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박경빈, 2007). 그러므로 영재아동이 처한 개인적 및 환경적 요인의 상호관련성 속에서 이들의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스트레스 하위영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놀이·여가요인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놀이·여가요인을 제외한 교우관계 요인, 학교생활 요인, 개인문제 요인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언급한 정복순(2002)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요즘 초등학교 학생의 일상을 보면, 영재아동이든 일반아동이든 대다수의 아동들이 학교의 정규 수업을 마친 후 또다시 사설학원 등에서 여러 가지 사교육을 받고 밤늦게 귀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패턴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 시간이나 장소가 부족할뿐더러 이렇다할만한 여가시간조차 내기 어려운 현실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놀이·여가에서 아동들의 스트레스 요인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현 세태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틀에 박힌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에게 놀이·여가 시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시로 제공하여 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학교적응 수준의 차이에서는 근소하게 초등학교 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모든 하위영역에서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학교생활 행동유형을 비교·분석하여 영재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높은 적응도와 낮은 행동문제를 보인다(이주현, 김정원, 1997; 유지연, 2008; 진현령, 1998)고 보고한 연구 결과들과도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아동의 장점이 여실하게 반영된 것으로써 영재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긍정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하고(이상희, 2003), 성취동기가 높으며(이주현, 김정원, 1997), 창의성이 뛰어나고 융통성이 많은 특성으로 인하여(진현령, 1998) 일반아동보다 다소 높은 학교적응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희(2003)에 의하면 영재의 사회 적응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장면에서의 적응아를 영재아동으로 하였고, 부정적인 견

해의 연구들은 임상장면에서의 부적응아를 영재아동으로 표집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영재집단의 경우 학교생활 속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적응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적응력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성적이 좋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성적이 낮은 학습자일수록 학교생활 적응상의 문제가 많으며(구혜숙, 1994),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습자들은 학교에 대한 감정,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전반에도 공헌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정기현, 2000)는 견해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더불어 가족의 경제적 지위, 부모의 높은 교육수준, 영재교육을 통한 지적 욕구의 충족으로 인한 높은 성취동기와 만족감은 긍정적인 학교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적인 요인(Solomon et al., 2002)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영재아동에 비해 다소 낮은 학교적응도를 보이고 있는 일반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물리적 그리고 심리·정서적 지원 방법을 학교장면에서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영재아동이 일반아동보다는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주어지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 등교거부, 학업포기, 비행 등의 문제행동, 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갈등과 같은 다양한 학교부적응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설명한 송경미, 한기순(2011)의 연구 그리고 영재아동이 지닌 정서적 민감성은 스트레스 자극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시킨다고 보고한 Swiatek(200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대인관계 요인과 학교친구 적응 사이에서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아동이 친구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면 학교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언급한 김지혜(2002)의 연구, 학교에서 아동에게 작용하는 중요한 압력요인 중 하나는 인간관계이며 이 부분에서의 실패는 학교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한 조은숙(1999)의 연구 결과와도 동일한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아동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정서적 지지는 또래들이며(Gagne, 2000), 교우관계는 학교적응의 성패를 결정짓는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최근 집단 괴롭힘이나 자살 등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기저에는 또래 및 교사 등과 같은 학교 내 인간관계 문제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나 증상을 표출하는 아동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의 구축을 비롯하여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한 다채로운 교육 및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지역의 수학 및 과학 초등영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하여 여러 가지 영재유형 예를 들어 미성취 영재, 서번트 신드롬, 잠재적 영재 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특성 및 수준을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과정은 교사 및 학교장의 추천이 1차 선발 조건이기 때문에 영재의 보편적인 정의에 들어맞는 진정한 영재들이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실증주의적 양적연구만으로 대상선정에서부터 연구전반에 이르기까지 왜곡되거나 편파적인 경향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질적인 접근을 통하여 영재의 개념정의를 비롯한 다양한 심리·정서적 측면 등을 검토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였으며 스트레스 요인과 그 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요인별 대처방식과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행해진다면 영재아동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상담의 자료로써 활용하는데 더욱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구혜숙 (1994). 학교적응과 비학문 자아개념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권혁록 (1996). 아동기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
- 김남재 (1986). 스트레스와 적응.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6(1), 27-64.
- 김민기 (2000). 학년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 행동의 차이. 석사학위 논문,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용래 (2000).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원순 (1996). 학습자들이 학교적응과 불안 및 학업성적 간의 상관관계.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지혜 (2002). 영재의 또래관계와 학교생활 적응.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김춘희 (2000). 초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김현선 (2006). 초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
- 김형철 (2000).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32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1호)**

- 박경빈 (2007). 영재아와 일반아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박광수 (200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및 증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박성옥, 이진숙 (2003). 영재와 일반아동의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 비교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3), 225-245.
- 박소희 (2010).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자아상태와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백영광 (2001). 초등학생들의 학교 스트레스 수준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송경미, 한기순 (2011). 초등 저학년 영재아동의 비동시성에 따른 부적응 사례연구. **영재교육연구**, 21(1), 209-230.
- 송경애 (2001). 중학교과학영재의 완벽주의 성향, 스트레스 강도, 대처방식 특성-남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심재순 (2006).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진현령 (1998). 영재유형별 스트레스 수준과 학교생활적응도와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정기현 (2000). 고등학생의 학업자아개념과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정복순 (2002).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정연우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 조봉환 (2004). 초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아동교육**, 15(3), 5-12.
- 조은숙 (1999). **정신위생**. 서울: 교학연구사.
- 유지언 (2008). 과학영재 중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여홍 (2003).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19(1), 443-472.
- 윤지순 (2002). 빈곤 가정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이국행, 이영환, 김연지 (2003). 과학영재아동의 적응, 자기지각,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13(2), 73-94.
- 이나미 (2006).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이상희 (2003).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유형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이연실 (2005).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주현, 김정원 (1997). 영재아의 학교적응과 사회성숙도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1(3), 271-294.
- 최인혁, 이근매, 이신동 (2009). 치료적 미술활동이 부적응 영재아동의 또래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6(3), 377-396.
- 최재영 (2006).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부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한미현, 윤안진 (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한은자 (2008).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관동대학교 대학원.
- 허창재 (2002). 영재아동의 스트레스요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Colangelo, N. (2002). Counseling gifted student.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373-385.
- Gagne, F. (2000). *Understanding the complex choreography of talent development though DMGT-based analysis*. In K. A. Heller, F. J. Monks, R. J. Sternberg, & R. F. Subotnik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 and talent*. New York: Pergamon.
- Gallucci, N. T., Middleton, G., & Kline, A. (1999). The independence of creative potential and behavior disorders in gifted children. *Gifted Child Quarterly*, 43, 194-203.
- Garland, A. F., & Zigler, E. (1999).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highly intellectually gifted youth. *Roeper Review*, 22, 41-47.
- Hardman, M. L., Drew, J. D., & Egan, M. W. (2005). *Human exceptionality: School, Community, and family* (8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 Moon, S. M. (2002). Counseling familie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388-399.
- Sayler, M. R., & Brookshire, W. K. (1996). Social, emotional, and behavioral adjustment of accelerated students in gifted classes and regular students in eighth grade. *Gifted Child Quarterly*, 37, 150-254.
- Solomon, J., Cardoso, M.-L., Educacao, E. S., & Branco, C. (2002). Studies of Portuguese and British primary pupils learning science through simple activities in the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4(1), 47-60.
- Swiatek, M. A. (2001). Social coping among gifted high school student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19-39.

## Comparison o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Gifted and General Children

**Choi, Eunju**

Myungho Elementary School

**Park, Jaekook**

Pusan National University

**Kim, Hyeri**

Joongbu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not only to offer educational information that helps to deal with stress of gifted and non-gifted elementary school students but also to guide educational support for their appropriate school adaptation by comparing and examing the level of stress and school adaptation and identifying relation between 2 variables. To this end, 563 gifted and non-gifted students were employed and completed questionnaire. Results analyzed from collected date were as follows.

First, among 5 sub-factors of stress, gifted students were under less stress than non-gifted. Second, in terms of school adaptation, gifted students adapted to school better than non-gifted students did. Third, resulting from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school adaptation, negative correlation was identified in both gifted and non-gifted students and, in general, gifted students showed more higher negative correlation than non-gifted. Based on these results, divers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ing plans that help gifted and non-gifted students to cope with stress and improve school adaptive ability were discussed.

**Key Words** : gifted children, general children, stress, school adjustment

---

논문 접수: 2013. 02. 05 심사 시작: 2013. 02. 14 게재 확정: 2013. 03. 25